여의도 하스팟

또 셧다운?

Analyst 하장권 research.ha@hmsec.com

이란발 지정학 불확실성 재부각

이번주 1월 FOMC와 빅테크(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테슬라) 실적 발표 앞두고 미국-이란과의 지정학 불확실성 재부각되며 지난 23일 WTI 유가가 3% 가까이 급등하고, 지난 주말 동안은 1/31 미 셧다운 우려가 제기되는 등 다수의 불확실성 요인들이 등장

다만,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 중 하나가 물가. 베네수엘라의 경우 매장량은 글로벌 1위에 육박하지만, 실제 산유량은 글로벌 수요의 1% 수준(100만bpd). 이에 반해, 이란은 매장량은 3위지만, 산유량은 베네수엘라의 3배에 달하는 300만bpd 수준이며 지리적으로도 중동에 위치해 있어 자칫하면 공급 리스크까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 베네수엘라와 이란 사태 각각 발발한 정치적 배경은 다르지만 유가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트럼프 입장에서 이란과의 충돌은 전면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1/31 셧다운 우려까지

지난 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미국 시민 여성에 총격을 가해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음. 이후 미니애폴리스를 포함한 미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발생하며 ICE 및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 상황. 당시 정부는 당시 사건을 정당방위라 주장

이러한 가운데 이번 24일, 같은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의 총격으로 미 시민권자 사망 사건 발생. 지난 23일 미 하원에서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의 마지막 4개(국토안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법안 중 하나인 국토안보부 예산법이 220표 vs. 207표로 승인된 바 있음. 다만, 이번 24일 사건으로 상원내 민주당에서는 해당 문제를 예산 승인 교섭 조건으로 걸면서 ICE 예산을 제한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을 제기하는 상황. 이에 Polymarket 상 10%를 하회하던 1/31 셧다운 확률은 80% 부근까지 상승한 상황.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 의석 수는 53개로 7표 이상 추가 확보가 절실한 상황

작년 4분기 발생했던 최장 기간 셧다운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양당 모두 이에 대한 학습과 부담 역시 있는 상황. 2번째 총격 사건 발생 전 시점이지만, 1) 민주당 역시 셧다운 가능성이 큰 시점에서 반대표가 많았음에도 중도층 몇몇이 돌아서면서 하원에서의 과반 확보가 가능했음. 2) 트럼프와 공화당 측 역시 중간선거가 있기까지 최근과 같은 불협화음보다 이제는 중간선거 표를 얻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해야 할 때. Real Clear Politics 상 트럼프 지지율은 해당 사건 발생 이후 최저점 수준인 상황. 3) 지난 최장기간 셧다운으로 주요 지표 발표 지연으로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다시금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해당 불확실성이 추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

현재 공화당 측은 기존 패키지 중 문제가 되고 있는 국토안보부(DHS) 부분을 제외한 법안을 분리하여 통과시킬 경우를 검토하는 중. 해당 시나리오가 가장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며, 이 경우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 하장권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